2023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5.31. 15시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10/10	2	1	13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손영준, 안호림,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 경영진 외 : 시청자센터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6	-	-	1	17	-	17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7	-	-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기타	연합뉴스TV 홈페이지 관련, 월드줌에 France24 채널이 단독 서브 메뉴로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Live뉴스가 아닌 2~10분 분량의 짧은 뉴스들이 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 같습니다. 찾는 시청자도 많지 않을 것 같은 데 시작 전에 봐야 하는 광고를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사항으로 월드줌은 대륙별 대표적인 Live뉴스채널을 배치하고, 짧은 편집 뉴스들은 세계 권역별/이슈별로 뉴스를 분류하여 한국어로 더빙하여 올리면 더 좋겠습니다.(김희중 위원)	홈페이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 초창기에는 4개 외신사 France 24, The Guardian, Newsweek, South China Mornig post의 콘텐츠를 같이 넣고 있었습니다. 번역이 안 돼 있어도 4가지 콘텐츠가 모여 있으니 구색은 갖춰져 있었는데,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3개의 콘텐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France 24 하나 남게 된 것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판단해 홈페이지에서 숨김 처리했습니다. <23.4월 조치>	'23.4월
보도	4월 8일 뉴스 17의 날씨 뉴스에서는 아래 스크롤로 지나가는 자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치 찬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9일 뉴스22의 날씨코너에서는 "큰 일교차 주의"라는 제목의 그래프에서는 "내일 낮"과 "내일 아침"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사소한 실수도 너그럽게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보다 시청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점검 부탁드립니다.(안호림 부위원장)	기상 기사는 날짜가 중요한 만큼 작성시 주의하도록 전달함. 또 기사에 반드시 일자를 넣어야하는 경우도 혼돈 없도록 전달함 <23.5월 조치>	'23.4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3. 01. 01.~ '23. 12. 31.)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	18.7.1.~24.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	21.11.01~23.10.31
이동준	1983.11.28	(현)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사임	23.02.01~25.01.31
안지연	1989.06.27	(현)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	23.02.01~25.01.31
박세진	1981.08.06	(현)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신규	23.06.01~25.05.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3. 1. 1.~ ’23. 12. 31.)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손영준	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전)국회 언론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부위원장	안호림	현)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편집위원	성정문화재단	문화	
위원	허인순	현)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전)한진엔지니어링 설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	
위원	김희중	현)중소기업중앙회 편집국장 전)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위원	서신석	현)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 전)한국유비쿼터스협회 부회장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학부모 단체	
위원	강건기	현)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 단체	
위원	진한수	현)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 전)서초경찰서 상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안성희	현)선진노무법인 부대표 전)서울특별시 마을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 단체	
위원	이상헌	현)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전)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위원	이성우	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실 과장 전)한국경제협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등 소외단체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5월 중순 이탈리아 100년 만의 최악의 홍수 기사는 지구 기후변화와 관련해 의제형성과 분석이 돋보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홍수 재난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 이탈리아 재난방재청에 해당하는 Vigili del Fuoco 로고가 처음에는 선명하게 나오다가 다음부터는 흐릿하게 blur 처리돼 제공되었	이탈리아 소방청 로고가 중간에 흐릿하게 처리가 된 것은 우상단의 연합뉴스TV라고 로고와 겹쳐서 이탈리아 소방청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 아닙니다. 저희와 계약이 돼 있는 영상 제공 업체 AP라든가 로이터, CCTV 등에서 그 영상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원 소스를 표시할 수는 있는데요. 관행이 구매를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습니다. Vigili del Fuoco는 해당 영상 촬영 기관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제공한 기관의 표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촬영자와 제공자가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뉴스의 경우 영상 출처와 제공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특파원 기사의 경우 영상편집자는 명기하는데, 영상 촬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영언론으로서 영상 source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막을 통해 제공처에 관한 정보를 최소한이라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호 MOU를 체결해 조정할 방안은 없는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영준 위원장)	한 영상에서 들어온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들도 원소스를 잘 표기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 소스에서 표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5월 22일 뉴스17에서는 공공기관 평균 연봉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와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공공기관 평균 연봉 7천만 원이고 15곳은 1억 원 이상이나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연봉 1억 원이 15곳 중 9곳은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 직원 평균 연봉보다 높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공공기관 중 가장 평균 연봉이 높은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1억1,709만8,000원이고,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라고 했는데요. 기사의 의도가 그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과도하게 높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지나치게 높은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사의 비교 대상이 잘못된 느낌입니다. 가장 연봉이 높은 기관들을 살펴보면 연구기관, 은	공공기관 평균 연봉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연구소, 금융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단순 제조 유통업체와 연봉이 같을 수가 없겠죠. 현대자동차도 직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명확한 비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행 등인데요. 제대로 된 비교라면 유사한 규모의 민간은행, 민간연구소의 평균 연봉과 비교했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으로서 맞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현대자동차는 기술·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연구직 등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점도 단순한 비교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호림 부위원장)				
보도 *시청자 불만활용	5월 22일 '뉴스리뷰' 프로그램 오후 8시 39분에 스크롤 기사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하면..."이라는 자막 스크롤이 여섯 번 연속 반복 송출 되었습니다. 이후 '뉴스투나잇' 프로그램에도 오후 9시56분까지 스크롤이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막 스크롤 실수는 사소한 거라 생각하여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송사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호림 부위원장)	같은 스크롤이 6개 동시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직도 원인 규명이 안 됐습니다. 스크롤을 만드는 담당자들이 실수를 했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 기술적인 오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송기술부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		
보도	[속보] 민주 "김남국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신속히진상조사도" 2023-05-10 12:33:20, 뉴스 진행 중 짧은 속보 보도였는데 진행 앵커우먼의 내용 전달이 마치 논객이 자기 주장 전달하듯 함. 속보일수록 객관적 전달이 중요하다 봄(허인순 위원)	속보 관련 정보를 전달한 방식이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대담하듯이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보통 단신이나 리포트를 방송하면서 속보가 뜰 경우는 그 분위기에 맞게 좀 진지하고 엄숙하게 건조하게 속보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담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정치대담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더군다나 또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를 아이템으로 대담을 하고 있는 도중에 속보가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앵커 입장에서는 조금 자연스럽게 녹이면서 들어간다고 한 것이 오히려 스트레이트와는 맞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닥치고 AI'....투자도 규제도 선도 K-AI 안될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2023-05-20 22:00 생성인공지능 서비스를 둘러싼 글로벌테크, 한국테크 기업들이 영어권 보다 자신들의 GPT 출현 지연, 오픈AI의 일자리 습격(헐리웃 작가들의 파업 등), 쳇GPT 인간 대체재로 각광, AI 고급기능 활용 장려 등으로 문제점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부정적, 긍정적 메시지로 유익했음, 뉴스프리즘 이슈 소개 시 1분 50초까지 자막 변경 시 마다 기계음(슉하는)이 반복되어 듣기 불편했음/ 4분,4분 27초 전문가 인터뷰는 너무 갑자기 끊겨 부자연스러운 편집이었음(허인순 위원)	뉴스프리즘 자막 변경 시마다 기계음 나는 건 효과음입니다.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기계음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끊기는 느낌이 난다는 것은 편집을 잘못한 거겠죠 그 부분도 전달을 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동해 지진 관련 보도 시 기사 발제와 리포트 구성상 아쉬움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이 막연한 위험이 아닌 실체적 위험이 돼가고 있는 만큼 막연한 대비책 주문보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실태, 해안가 지진 대피 시설과 안내판, 지진대피 훈련과 교육 실태, 해저 지진 예보 체계 등의 실상을 직접 취재해 점검해 보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뉴스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소 안일하고 평이한 기사 발제이자 리포트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향후 뉴스 제작 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드림.(김희중 위원)	지진 관련 분석적인 보도를 해야 된다는 지적은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커지고 있는 한반도 지진 위험에 대해서 다각도로 취재해보겠습니다.	○		
보도	외국 특파원 보도 시 추가 취재 없는 단순 외신 전재 행태 개선해야, 지난달	말씀하신 특파원 보도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을 겁니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4.21일 연합뉴스TV 미국 특파원은 '애플의 간택은 죽음의 키스(?)...'라는 뉴스를 통해 애플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를 적나라하게 리포트해 시청자로서 매우 흥미롭게 시청함. 이번 애플의 갑질 뉴스도 리포트 구성상 미국의 경쟁 당국이 애플과 같은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불이익을 겪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취재해 전해줘야 뉴스의 완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앞으로 특파원이 외신 기사를 전재하여 국내에 소개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 전재보다는 보강 취재를 통해 국내 시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김희중 위원)	다. 특파원 기사가 특파원 기사로서의 장점이라든가 취지를 살리려면 단순히 외신을 전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도 담아야 되고 조금 더 보완 취재도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특파원이 미국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리포트를 해야 되고 하는 부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인력, 시간의 부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성의의 부족 때문이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	객관성을 근간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 굳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지난 5.6~7일 메트릭스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를 하고 5.8일 자체 방송을 통해 공표함. 연합뉴스TV가 참고 수준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임. 하지만 여론조사는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할 수밖에 없어 정치색 없이 객관적인 뉴스를 내보내 연합뉴스TV를 선호하는 시청자들에게 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1년 후 있을 지방선거로 인해 앞으로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를 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TV가 시청자들에게 단순히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여론조사를 하고 공표하는 것이 객관성이 근간인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치와 신뢰를 더 높이	여론조사 문제는 업체가 난립하고 정파성이 있고 불공정한 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한 조사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계기로 했습니다마는 비교적 샘플이 1천 명으로 많구요. 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ARS조사가 아니라 전화면접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응답률이 5~7%에 불과한 데 비해서 저희는 18.5%였습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정치파트에서 문항 등에 있어서 비교적 객관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한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매달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노력한 만큼 조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임.(김희중 위원)				
보도	2023. 5. 15 : 연합뉴스TV의 [씬속뉴스] 英석학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유는? 보도 내용, 국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합뉴스TV의 씬속뉴스 보도에서 英 석학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도 마실 수 있다."는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을 오염수 방류문제와 관련된 팩트 체크 없이 일본 정부의 발표를 대변하는 듯한 내용을 자막으로 보도하고 종료되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균형을 잃은 보도로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방송보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서신석 위원)	해당 '씬속뉴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TV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 전용 콘텐츠인데요.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청자들한테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관련부서에 알아보니 타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이 된 아이템이라 화제가 된 현장을 집중적으로, 날 것으로 빠르게 보여준다는 해당 코너의 콘셉트에 맞게 처리했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야당에서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만큼 저희가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보도	5. 5 일자 뉴스"청소년 '비만 불평등'...부모 학력·소득 등 영향" 보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15년 사이 2배 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 내용은 연대 의대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81만 여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06년 5.9%에서 2020년 11.7로 2배가량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도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계량화해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따져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 순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뉴스에	청소년 비만 관련 보도는 리포트가 아니었고 아마 단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는 단신이 30~40초 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담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단신 짧은 분량 안에 이런저런 거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넣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완성도가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서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황만이 영향을 준거처럼 보도한 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에 영향을 주는 응답 항목이 상당히 많음에도 비만 유병률이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순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강건기 위원)				
보도	5. 16일자 뉴스 1번지에서 자막 "젤렌스카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있어"쯤에서 진행자가 대담 시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의 한국 방문을 설명하면서, 젤렌스카 여사가 윤석열 부부를 우크라이나에 공식 초청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하였으나,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강건기 위원)	앵커의 실수입니다. 자막 같은 경우는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들어갈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직함을 생략하고 윤석열 부부 할 수도 있고 윤 부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가피하지 않을 때는 직함을 넣는 것이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가 멘트에서 직함 없이 윤석열 부부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처사구요. 아마도 경험이 부족한 앵커가 엉겁결에 실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시청자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2023. 5. 22. 07:26:12 출발 600 "여성 노린 주거침입 기승...", 이 기사에서 1분 40초가 지나면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 하체 부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 촬영 자체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성범죄와 그러한 자료 화면의 어떠한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매우 부적절하였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짧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성관	영상 편집을 좀 부주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놓으면 무의식 중에 노출이 심하면 성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렇게 연관성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편집부에 성범죄 사건의 편집을 할 때는 좀 각별히 유의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념이 그 기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무심코 이러한 자료화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 촬영 자체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그 부분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진한수 위원)				
보도	[출근길 인터뷰] 본격적인 '모내기철'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 캐스터의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 투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걸까요?'라는 질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고 지금 절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만 언급하고 인터뷰가 마무리가 되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농업인구 절대부족, 고령화 심화는 이미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모내기철을 맞아 한번 더 정확한 수치 제시를 통해 알려준다는 취지인 것인지? 차라리 농업인구 절대부족, 고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나 정부정책, '농업 분야 외국인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 불법체류' 등의 연관 이슈를 다루는 것이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안성희 위원)	'출근길 인터뷰'가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기자가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기자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출근길 인터뷰에 기자 한 명을 배치하면 거의 그 기자는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상황이 돼서 기자 대신 리포터로 저희가 대체를 했는데요. 리포터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자처럼 정교하게 구성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데스킹 과정에서 잡아줬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이라고 이렇게 자막을 넣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출근길 인터뷰 담당하는 리포터와 데스크에게 작성 과정에서 유의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도	지난 5월 22일 출발600에서는 '한국영화 부진 길어지나... 할리우드 대작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기사 주제로 한국영화 부진을 우려하는 듯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나	'한국영화 부진 길어지나...할리우드 대작 줄줄이 대기 중' 이런 제목을 단 거는 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용 자체가 대부분 해외 영화를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한국 영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한국영화와 해외영화 관객 수 추이 등을 비교하면서 한국영화가 부진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지만, 보도 내용 대부분이 5~6월에 개봉될 해외영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홍보성 보도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영화가 부진한 상황 외에 그 원인이나 개선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시사회평가 좋고 더빙을 유명 연예인이 해서 관심받는 인어공주',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하는 트랜스포머', '칸 폐막작 엘리멘탈', '15년 만에 찾아오는 전설적인 인디애나 존스 마지막 시리즈' 등 개봉을 앞둔 영화를 소개하고, 이 영화들은 제작비가 수천억 원대라는 등의 내용이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사 주제와 보도 내용이 불일치되는 느낌을 주거나 홍보성 보도로 느껴지는 내용의 구성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상헌 위원)	화 부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성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위해 기사를 쓰지는 않지요. 사실 영화나 책 소개 이런 건 홍보성 느낌을 완전배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보시는 분에 따라선 홍보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다만 선별 기준을 제대로 갖고 시청자들한테 정말 소개할 만한 것들을 소개하면 그나마 그래도 홍보성이라는 오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청자 일반의 인식과 동떨어진 영화나 책을 소개한다면 진짜 홍보란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타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메인 하단부에 '많이 본 콘텐츠' 항목에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보이는데, 광고가 섞여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록 앞에 [AD]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도자료처럼 노출되는 광고도 있어 이용자에게 거부감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와 기사를 구분해서 노출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이상헌 위원)	홈페이지 하단에 많이 본 광고 콘텐츠 이거는 저희 광고사업쪽의 얘기로는 네이티브 형식의 광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고 같지 않은 광고죠. 그니까 웹 페이지라든가 앱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시청자들한테 녹아들어가는 광고 방식인데 자칫 하면은 진짜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개선점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보도	"부럽지만 나하곤 상관없어"...쪽방촌 쓸쓸한 어버이날(5.8), 올해의 어버이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어버이날이었기에 부모와 자식의 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보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로 사는 경우에 가족 간의 만남은 그어느 때보다 애틋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날 연합뉴스TV는 가족이 모여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버이날마저도 그저 남의 일처럼 홀로 외롭게만 지낼 수밖에 없는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보도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조명하였습니다. 연고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이들의 이날 일상에 대한 보도는 시청자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평범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꿈과 같은 행복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뉴스는 사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곳곳을 비추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어두운 면을 밝게 비추는 연합뉴스TV의 지속적인 뉴스 보도를 기대합니다.(이성우 위원)				
보도	"코인 손실 보상해드려요"...신종 보이스 피싱 주의(5.9), 최근 주식이나 가상자산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언론이 며칠 후에 보도한 점을 보더라도 연합뉴스TV가 가장 먼저 보도함으로써 뉴스 이용자들이 방송으로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유형, 대응책 등을 총망라한 심층 분석 보도가 나올 법도 한데 아직은 딱히 이러한 보도가 보이질 않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보도전문 채널이자 공영언론의 선두인 연합뉴스TV에서 가능하다면 시청자를 비롯해 국민에게 관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심층 기획보도를 추진하길 기대해 봅니다.(이성우 위원)	신종 보이스 피싱은 워낙 하루가 다르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표적인 신종 피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